

## 다양한 생각이 어울리며 성장하는

임상빈

1.

이번 전시는 회화전으로 전시명은 '**다양한 생각이 어울리며 성장하는 세상**'이다. 여기서는 수많은 획들이 화면 가득 풍성하다. 나는 이 프로젝트가 일종의 추상적인 X 함수로서 기왕이면 세상을 담는 유용한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 이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특성 네 가지, 다음과 같다:

첫째, '**생각의 바다**'를 표현한다. 그야말로 수많은 생각이 얽히고설키며 여기서 저기로, 혹은 저기서 거기로 끊임없이 교차하는 풍경을 시각화했다. 우리는 태생이 멀티태스킹이다. 지금도 별의별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맴돈다.

둘째, '**작은 아이들**'을 표현한다.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다. 물론 가끔씩 반장이 독선적이거나, 혹은 교체되곤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소중하다. 그리고 때에 따라 모두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 홀로 주인공, 없다.

셋째, '**생명의 성장과정**'을 표현한다. 우선, 화면에 확 붓질을 한다. 다음, 이를 열심히 매만진다. 그러다 보면 마치 운동하면 근육질이 되듯이 개별 획들이 더욱 무게감 있게 또렷해진다. 통상적인 추상화는 일필휘지에 경도되지만 나는 '일획이 만획이요, 만획이 일획이라는 대통합'을 추구한다.

넷째, '**일종의 군집 초상화**'를 표현한다. 얼굴은 그야말로 기운생동의 장이다. 조금만 표정이 바뀌어도 금방 알아채기에. 그런데 개별 획도 마찬가지로. 평상시 나는 관상에 관심이 많은데, 이를테면 수직으로 긴 획은 심지가 곧고 수평으로 넓은 획은 궁금증이 많아 보인다. 그러고 보면 획은 곧 얼굴이다.

이와 같이 애초에 저지른 수많은 획들을 오랜 기간 애정하고 다듬으며 결과적으로 조화로운 화면을 구축하다 보면 조금씩 '**내 마음**'이 보인다. 여러분도 이 전시를 통해 세상의 온갖 변민을 경험하면서도 기왕이면 나를 이해하고 다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

생각이는 생각이 많다. 그리고 도무지 실 줄을 모른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그가 생각을 멈춘다면? 아,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생각은 곧 생명!**

물론 무조건 맞는 건 없다. 이거저거 해보며 발전을 기대할 뿐.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생각이는 씨앗을 뿌린다. 결국 누군간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이를 키우는 건 우리 모두의 몫,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여하튼, 여기저기 자기 일에 열심이다. 그렇다면 나는 작업실, 붓을 던진다. 그리고 이를 열심히 다듬는다. '일획이 만획이요, 만획이 일획'이듯, **돈오점수(頓悟漸修)** 여기 있네.

작업하면 그야말로 시간, 훅 간다. 땀방울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그간 생각이가 남긴 한 획, 한 획을 읊조린다. 물론 분야는 사방으로 뻗는다. 한 예로, 사회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아홉 개 주의, 다음과 같다:

첫째, '**인본주의**'! 여기서의 '나는 나야'라는 식으로 남과 같이 내게도 보장된 '**권리의 수호**'가 중요하다. 즉, 인본주의자 왈, "내 감정 살피라고!"

둘째, '**신본주의**'! 여기서의 '다 신의 뜻이야'라는 식으로 완전무결한 우주적 섭리로 작동하는 '**신의 질서**'가 중요하다. 즉, 신본주의자 왈, "그분을 의지하라고!"

셋째, '**민주주의**'! '함께 결정하자'라는 식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다. 즉, 민주주의자 왈, "내 말 들었냐고!"

넷째, '**왕본주의**'! '왕이 통치자야'라는 식으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질서**'가 중요하다. 즉, 왕본주의자 왈, "그분을 모시라고!"

다섯 째, '**자본주의**'! '다들 해 봐'라는 식으로 누구나 경쟁 가능한 '**공통의 시장**'이 중요하다. 즉, 자본주의자 왈, "돈은 똑같다고!"

여섯 째, '**사회주의**'! '우리 좀 챙겨'라는 식으로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복지의 균등**'이 중요하다. 즉, 사회주의자 왈, "개입 하겠다고!"

일곱 째, '**본능주의**'! '원래 내가 그렇다니까'라는 식으로 생태계에 고르게 작동하는 '**자연의 질서**'가 중요하다. 즉, 본능주의자 왈, '남는 놈이 센 거라고!'

여덟 째, '**공산주의**'! '모두를 고려해라'라는 식으로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한 '**위치의 균등**'이 중요하다. 즉, 공산주의자 왈, "모든 노력은 똑같다고!"

아홉 째, '**컴본주의**'! '연산처리가 우선이야'라는 식으로 운영체제 작동을 최적화하는 '**효율적 기능**'이 중요하다. 즉, 컴본주의자 왈, "잘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야, 여기서 박수! 생각이, 참 별의별 프로그램 다 쫓다. 그런데 당연하다.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으니까. 수많은 **작은 아이들**이 얽히고설키며 티격태격하는 게 우리네 세상이다. 태생이 그냥 멀티태스킹. 이를테면 지금도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고!

당대에 사랑받는 프로그램은 보통 여러 개. 한 예로 인본주의와 민주주의, 그야말로 멋진 동료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영원한 반장, 즉 동서고금 막론하고 유일한 주인공은 없다. 오히려, 때에 따라 잘만 맞으면 **모두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상황과 맥락마다 다들 나름의 가치가 있기에.

나는 내 인생의 감독, 오늘은 어떤 배우로 새로운 극을 전개할까? 씨를 뿌리고 키우듯이 **생명은 성장**해야 제맛인데... 개인적으로는 나 홀로 주인공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서로 어울리며, 문화적으로는 함께 성장하는, 결국은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여기는 작업실, 덩실 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오네.

결국, '다양한 생각이 어울리며 성장하는 세상'을 표현하고자 수많은 붓질이 사방에 동지를 트고 켜켜이 쌓여간다. 그야말로 여러 얼굴이 모인 **군집 초상화**, 즉 뭐든지 대입 가능한 X 함수다. 이를테면 음양 기운, 보수 진보, 혹은 다르면서도 유사한 우리들의 삶.

그래, 아무리 막나가도 형태, 색채, 질감에는 죄가 없다. 이를 알레고리로 만드는 사람이 범인이지. 이와 같이 다차원적으로 세상 만물을 음미하는 **다중우주 인생살이**를 즐기다 보면, 생각이 뜬금없다. 지금 당장 행복하십니까? 허허, 마음이가 웃지요. 거울아, 여기 좀 봐.

### 3.

작품 감상을 위해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공시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별의별 일 참 많습니다. 제 작품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획들을 통해 '조형의 3대 요소', 즉 형태, 색채, 질감이 **'다양하게 어울리는 세상'**을 음미해 주세요.

다음, 통시적으로 나를 돌아보면 철드는 데 오래 걸립니다. 제 작품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별 획을 통해 '조형의 완결성', 즉 애초의 우연적인 붓질이 필연적으로 쌓이며 **'나름대로 성장하는 사람'**을 음미해 주세요.

이와 같이 저는 제 작품이 **'각양각색의 세상과 사람'**을 담은 풍부하고 튼튼한 그릇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여기 담기는 수많은 생각'이 심신에 좋은 음식이 되어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